■ 민족문화연구 제85호(2019.11.30),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289-317.
http://doi.org/10.17948/kcs.2019..85.289

『뎡니의궤』를 통해 살펴본 화성 낙성연의 전모와 전통연희사적 가치*

허용호(許龍鎬)**

목 차

1. 다시 화성 낙성연을 주목하는 이유
2. 화성 낙성연의 새로운 면모
3. 화성 낙성연의 입체적 조망
4. 화성 낙성연의 전통연희사적 가치

국문초록

본 연구는 화성 낙성연의 전모를 파악하고 그 전통연희사적 의의를 따져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주요 검토 자료는 『뎡니의궤』이다. 『뎡니의궤』를 보면 화성 낙성연과 관련해서 새롭고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담겨있다. 화성 낙성연에 대한 『화성성역의궤』에서의 미진한 내용을 보완하고, 그 전모를 파악하는데 요긴한 대상이 『뎡니의궤』이다. 필자가 다시 화성 낙성연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찰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796년(정조 20) 10월 16일 화성 행궁 낙남헌 일대는 축제판이 되었다. 그 축제에서는 10월 16일 아침 일찍부터 시작하여 밤을 새우고 다음 날 해가 뜰 무렵까지 여러

* 본 연구는 수원시정연구원의 2017년도 수원학 학술연구지원사업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객원교수.

연행이 벌어졌다. 연행은 두 공간에서 벌어졌다. 보계 무대에서는 포구락, 연화대, 무고, 몽금척, 헌선도 등이 정재가 여령과 악공들에 의해 연행되었다. 마당판에서는 호랑이춤과 사자춤, 그리고 만석중춤이 어우러지는 연희가 연행되었다. 정재가 격조 있고 흥을 중심으로 한 연행이었다면, 마당판에서의 연행은 어지럽게 난장을 벌이는 신명 중심의 연행이었다. 야희와의 결합을 추론해 볼 수 있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날이 저물자 축제판을 재정비하여 작은 규모의 연주와 쌍검무 등이 어우러지는 밤 연행이 이어졌다. 축제는 다음 날 동이 터 오를 무렵까지 지속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파악된 화성행궁에서의 낙성연은 그동안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몇 가지 정보들을 전해준다. 제시되는 정보들은 '삼십 간 보계의 구조와 차일 설치', '마당에서의 산대 조성', '위계에 따른 관객석의 배치', '관객들의 구체적인 정체', '채붕과 산희의 구체적인 양상', '산희와 야희의 경계 해체', '연희자들의 정체', '정재 연행 종목의 양상', '밤 연행의 모습', '밤을 지새워 진행되는 축제적 양상'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정보들은 우리의 전통연희사를 기술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도 소중한 항목으로 자리한다.

주제어: 화성 낙성연, 『뎡니의궤』, 『화성성역의궤』, 전통연희사, 산희(山戱), 야희(野戱), 화성행궁.

1. 다시 화성 낙성연을 주목하는 이유

본 연구는 화성 낙성연의 전모를 파악하고 그 전통연희사적 의의를 따져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주요하게 검토하는 자료는 근래 발굴되어 주목받고 있는 『뎡니의궤』이다. 『뎡니의궤』는 한글로 된 『화성성역의궤』라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화성성역의궤』에서는 찾아볼 수 없거나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화성 낙성연과 관련해서도 『뎡니의궤』에서는 새롭고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담겨있다. 화성 낙성연에 대한 『화성성역의궤』에서의 미진한 내용을 보완하고, 그 전모를 파악하는데 요긴한 대상이 『뎡니의궤』인 것이다. 더구나 『뎡니의궤』에는 그동안 모호했거나 그 실체가 불분명했던 전통연희들이 화성 낙성연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전통연희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연희들이 많은 것이다. 필자가 다시 화성 낙성연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로운 자료를 섬세하게 고찰하여 화성 낙성연의 가치를 재조명해 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필자가 주요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뎡니의궤』와 『화성성역의궤』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뎡니의궤』 권39,[1] 『뎡니의궤』 권40・46・47・48,[2] 『수정국역 화성성역의궤』,[3] 『정조대왕과 수원화성』[4] 등이 본 연구를 위한 대상이 되었다. 본 연구는 이 자료들을 대상으로 삼아 '화성 낙성연의 전모와 전통연희사적 가치'를 논의한다. 그동안 이러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미 화성 낙성연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뎡니의궤』에 대한 연구 역시 몇 편 제출되었다. 그 연구 성과들을 정리해 본다면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화성성역의궤』의 한글본이라 할 수 있는 『뎡니의궤』에 대한 일련의 서지적 연구가 첫 번째 유형의 연구이다. 두 번째 유형은 한문본인 『화성성역의궤』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화성 낙성연 연구이다. 세 번째 유형은 『뎡니의궤』의 내용 중에 있는 '채색 「낙셩연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화성 낙성연 연구이다. 그리 많지 않은 관련 연구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들을 세 유형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뎡니의궤』에 대한 서지적 연구' 유형이다. 이 유형에서는 옥영정의 일련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한글본 『뎡니의궤』의 서지적 분석」,[5] 「『華城城役儀軌』의 한글 자료에 관한 연구」,[6] 「『華城城役儀軌』와 『뎡니의궤』의 서지적 분석과 비교」[7] 등이 그것이다. 이 연구들은 비단 서지적 연구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연구를 위한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뎡니의궤』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될 이후 논의를 위한 기초 연구로서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초 연구로서의 의의'는 동시에 한계가 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화성 낙성연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쉬움이 지적될 수 있는 것이다. 옥영정의 일련의 연구는 『뎡니의궤』 내용에

1) 『뎡니의궤』 권39(COR.40),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 소장본.
2) 『뎡니의궤』 권40・46・47・48(COR.1-21), 프랑스 파리 동양어학원 도서관 소장본.
3) 김만일 외 역, 『수정국역 화성성역의궤』, 경기문화재단, 2001.
4) 수원화성박물관, 『정조대왕과 수원화성』(정조대왕 즉위 24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도록), 수원화성박물관, 2016.
5) 옥영정, 「한글본 『뎡니의궤』의 서지적 분석」, 『서지학연구』 제39집, 한국서지학회, 2008.
6) 옥영정, 「『華城城役儀軌』의 한글 자료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46집, 한국서지학회, 2009.
7) 옥영정, 「『華城城役儀軌』와 『뎡니의궤』의 서지적 분석과 비교」, 『진단학보』 제127호, 진단학회, 2016.

대한 기초적이고 개괄적인 접근만 이루어졌을 뿐,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뎡니의궤』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고찰과 그것이 갖는 의의나 의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인 '한문본 『화성성역의궤』 중심의 화성 낙성연 연구'로는 허용호의 『화성행궁과 전통연희』[8]가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는 조선 후기 화성행궁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두 행사를 대상으로 했다. 1795년에 벌어진 봉수당 진찬연과 1796년에 벌어진 화성 낙성연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다. 두 행사에서 벌어진 전통연희를 고찰하고 그 문화예술사적 의의를 따져보았다. 허용호의 연구는 화성 낙성연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의 선편을 잡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화성 낙성연의 배경과 전통 연희사적 의의를 본격적으로 따져본 첫 번째 연구인 것이다. 그런데 이 연구는 한문본 『화성성역의궤』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화성성역의궤』의 구체적이지 못한 언급들로 인하여, 낙성연의 양상이 추상적으로 정리되었다. 따라서 더욱 구체적인 화성 낙성연의 전모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가 발표된 시기가 아직 『뎡니의궤』가 발굴되지 않았던 때라서, 『뎡니의궤』에서 포착되는 화성 낙성연 관련 내용이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 화성 낙성연에 대해 보완하거나 수정할 대목이 적지 않은 것이다. '총리대신 채제공의 참여 여부', '구체적으로 연행된 연희 종목', '참여한 연희자들의 정체', 그리고 '호랑이춤이나 만석승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연희' 등이 보완하거나 수정해야 할 것들이다. 이러한 허용호 연구의 아쉬움은 『뎡니의궤』의 섬세한 고찰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세 번째 유형인 '채색 그림 〈낙셩연도〉 중심의 화성 낙성연 연구'는 최근에 이루어졌다. 2016년에 전경욱은 「새 자료 채색화 「낙성연도」를 통해 본 산희(山戲)의 실체」[9]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연구는 『뎡니의궤』의 〈낙셩연도〉에 주목한 것이다. 〈낙셩연도〉에 그려진 청색 사자춤과 황색 호랑이춤, 그리고 채붕 위에서의 벌어진 연희에 주목하여, 그것들이 유득공이 『경도잡지』에서 언급

8) 허용호, 「화성행궁과 전통연희」, 『민족문화연구』 제39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3.
9) 전경욱, 「새 자료 채색화 「낙성연도」를 통해 본 산희(山戲)의 실체」, 『민족문화연구』 제73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6.

한 산희의 실체임을 주장했다. 흑백으로 그려진 〈낙성연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이 연희들을 발 빠르게 포착하여, 말로만 전해지던 산희의 실체 규명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동시에 그동안 『화성성역의궤』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 새롭게 발견된 『뎡니의궤』를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아쉬움도 있다. 새로운 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지만, 〈낙셩연도〉 자체에만 너무 집중했다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다. 새롭게 발견된 〈낙셩연도〉에 대한 발 빠른 연구가 오히려 아쉬움을 낳게 한 원인이 되었다. 『뎡니의궤』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더욱 섬세하고 구체적인 화성 낙성연의 전모를 포착해내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전경욱 연구의 아쉬움은 『뎡니의궤』에서 언급된 화성 낙성연에 대해 더욱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상의 선행 연구 검토의 결과, 첫 번째 유형의 '『뎡니의궤』에 대한 서지적 연구'는 '『뎡니의궤』에 대한 기초 연구로서의 의의'와 '『뎡니의궤』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고찰과 그 의의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두 번째 유형의 '한문본 『화성성역의궤』 중심의 화성 낙성연 연구'는 '화성 낙성연의 배경과 전통연희사적 의의에 관한 본격적 연구의 시작'이라는 의의와 '『화성성역의궤』 이외의 자료를 통한 오류 수정과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세 번째 유형의 '채색 그림 〈낙셩연도〉 중심의 화성 낙성연 연구'는 '새롭게 발견된 『뎡니의궤』를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의의와 '『뎡니의궤』 전반에 대한 섬세하고 구체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의의를 계승하고 아쉬움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뎡니의궤』 전반에 대한 섬세한 고찰을 바탕으로 한 화성 낙성연 연구가 필요하다. 필자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본 연구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뎡니의궤』를 중심으로 화성 낙성연의 구체적인 양상과 전통연희사적 가치를 고찰하는 연구를 통해 선행 연구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다.[10]

10) 1장의 제목에서 '다시'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본 연구는 필자의 이전 연구인 「화성행궁과 전통연희」에 대한 보완의 의미가 강하다. 이전 연구의 오류를 수정하고 보완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그래서 1장의 제목에 '다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2. 화성 낙성연의 새로운 면모

『뎡니의궤』를 보면, 이전의 그 어떤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화성 낙성연의 양상이 나타난다. 그것들은 화성 낙성연의 새로운 양상이기도 하고, 이전까지의 정리된 내용과 다른 정보를 주는 것이기도 하다. 필자가 새롭게 확인한 화성 낙성연의 양상은 '화성 낙성연 참석자에 대한 정보', '화성 낙성연 무대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관객석의 구체적인 배치 양상', '정재 연희자들의 정체', '새로운 정재 연희 종목', '산희와 야희 연행의 구체적인 양상', '화성 낙성연의 전개 양상'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 2장에서는 이렇게 『뎡니의궤』를 통해 새롭게 확인된 화성 낙성연의 양상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화성 낙성연 참석자에 대한 정보: 총리대신 채제공의 참석

화성 낙성연은 1796년(정조 20) 10월 16일[11]에 낙남헌에서 벌어졌다.[12] 원래 낙성연은 1796년 10월 15일에 예정되었지만 여러 정황 때문에 16일로 옮겨졌다.

> 낙성 잔치를 이달 15일로 정하였으므로 음식들은 대부분 미리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삼가 들으니 어제부터 임금의 수라상의 반찬 수를 줄인다는 명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때에 잔치를 베풀고 즐긴다는 것은 황송한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오시기로 약속한 여러 손님 및 내영의 관리들도 이 때문에 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선(減膳)의 명령이 끝난 뒤를 기다려 날짜를 16일로 잡았습니다.[13]

본래 1796년 10월 15일의 낙성연에는 정조가 김포의 장릉(章陵)을 거쳐 참가하는 계획을 착실히 준비했다.[14] 그러나 옹주가 두질(痘疾)을 앓게 되는 돌발 상황이 벌어지자 원자와 함께 이문원으로 거처를 옮긴다.[15] 그리고 장

11) 『華城城役儀軌』 卷首 時日.
12) 『華城城役儀軌』 附編二 甘結 丙辰年 十月 初七日.
13) 『華城城役儀軌』 附編二 甘結.
14) 이달호, 「'華城' 建設 硏究」, 상명대 박사학위논문, 2003, 176면.
15) 『正祖實錄』 권45 정조 20년 9월 22일 甲子.

릉을 거쳐 낙성연 참가 계획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16] 낙성연도 중요하였지만, 왕위를 이어갈 원자의 보호가 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었다.[17] 그리고 16일로 옮겨진 것은 1796년 10월 13일 우레가 쳐서 정조가 "우르릉거리는 우렛소리가 겨울에 들려왔으니 지금부터 3일간 반찬 수를 줄임으로써 반성하고 수양하는 도리를 다하겠다."[18]고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들 때문에 화성 낙성연은 그 규모와 초청 인사가 축소되고 시일도 변경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화성 낙성연에 총리대신인 채제공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다.[19] 본래의 초청 인사들이 많이 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명리의궤』를 보면 다음과 같이 총리대신 채제공이 참석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온다.

> 이날 당낭이 해 일즉이 니러나 셩ᄒᆞᆫ복ᄉᆡᆨ으로 몬져 연ᄉᆞ에 나아가니 총니ᄃᆡ신이 이믜 ᄂᆞ려완 지 수일이라[20]

이렇게 『명니의궤』를 통하여 화성 낙성연에 총리대신이 참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참석 확인은 앞서 '총리대신의 불참'이라는 기존 주장의 오류를 수정하게 만든다.

2) 화성 낙성연 무대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삼십 간 보계와 차일 설치 및 마당

화성 낙성연이 벌어진 공간은 화성행궁의 낙남헌(洛南軒)이다. 낙남헌은 각종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알맞게 배치한 행사용 건물이다. 그 건물 용도에 걸맞게 낙남헌은 1796년 10월 16일에는 낙성연의 공간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낙성연을 위해 낙남헌에 어떤 무대가 설치되었는지를 그동안 가늠할 수 없었

16) 『正祖實錄』 권45 정조 20년 9월 25일 丁卯 참조.
17) 이달호, 앞의 글, 176면.
18) 『正祖實錄』 권45 정조 20년 10월 13일 乙酉.
19) 허용호, 앞의 글, 185면.
20) 『명니의궤』 권48. 띄어쓰기는 필자가 했다. 이후에도 동일.

다.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 보계와 차일이 설치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뿐이었다.

> 보계를 설치하는 따위의 일은 미리 거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계의 판자와 차일, 둘러칠 병풍, 장막, 유기, 목기 등은 아울러 본부에 있는 것을 쓰고 음식 조리를 위한 임시 가옥과 건물 및 솥, 물, 담을 통 등은 역소에서 만들어서 옮겨다 쓰도록 하기 바랍니다.[21]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록에 덧붙여 『화성성역의궤』의 〈낙성연도〉를 통해서 무대 구조를 대략 추정해 왔다. 그런데 『뎡니의궤』에서 보계의 크기와 전반적인 무대 구조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어 흥미롭다.

> 낙남헌 앏희 삼십 간 보계를 베프고 쳠하에 챠일이 놉기 구름ᄀᆞᆺ틋며 쓸에 빈셜ᄒᆞ믄 강무당 압ᄭᅴ지 빅 여보를 통ᄒᆞ여시니[22]

보계의 크기가 '삼십 간'이며, 처마에 차일을 치고, 강무당[23] 앞까지 연결된 마당을 활용했음이 나타나고 있다. 낙남헌 대청으로부터 임시로 가설된 보계와 마당으로 이어지는 낙성 잔치판의 구조가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3) 관객석의 구체적인 배치 양상: 위계에 따른 관객의 배치

『뎡니의궤』에서는 구체적인 관객들의 배치 양상이 언급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관객들의 모습을 그림을 통하여 추정해 왔는데, 이 기록을 통하여 보다 분명하게 관객들의 배치 양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뎡니의궤』에 따르면 관객들은 다음과 같이 자리를 잡았다.

> ᄎᆞ례로 좌에 나아가니 총니대신은 장중의 쥬벽ᄒᆞ고 감동당낭은 셔벽의 동향ᄒᆞ되 겹줄노 위를 다ᄅᆞ게 ᄒᆞ며 듕빈의 위는 동벽의 셔향ᄒᆞ고 감동제원은 보계 동

21) 『華城城役儀軌』 附編二 甘結 丙辰年 十月 初七日.
22) 『뎡니의궤』 권48.
23) 강무당(講武堂)은 낙남헌 북쪽으로 210여 보쯤에 있다. 앞에는 군사 훈련장이 있고 곧바로 낙남헌 앞뜰로 통한다. 김만일 외 역, 앞의 책, 626면.

셔로 분좌하며 장교원역은 계하 동서로 ᄂᆞᆫ화 좌를 주고 공장역부는 압흐로 당을 향ᄒᆞ야 버려 안치니 일흠 업시 참예ᄒᆞ는 손은 별노 후헌에 자리를 베프며 막부의 모든 사ᄅᆞᆷ은 좌우로 반녈을 ᄎᆞ렷더라[24]

이에 따르면 낙남헌 대청 중앙에 총리대신이 자리를 잡고, 그 왼쪽에 감동당낭들, 오른쪽에는 중요한 손님들이 자리를 잡았음을 알 수 있다. 보계 위에는 감동제원들을 동서로 나누어 자리 배치를 하였다. 보계 아래에는 장교원역들을 동서로 나누어 자리를 주었으며, 공장역부인 경우 앞에 정면을 향하여 벌여 앉게 하였다. 그리고 이름 없이 참여한 이들은 별도로 후원에 자리를 잡게 했다. 이러한 자리의 구체적인 배치 양상은 선행 연구[25]에서 추상적으로 '초청 인사'라 표현했던 것을 보다 구체화해주고 있다.

4) 정재 연희자들의 정체: 여령과 악공의 참여

화성 낙성연에 참여한 연희자들의 정체는 그동안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선행 연구에서도 『화성성역의궤』에 그려진 〈낙성연도〉와 봉수당 진찬연을 기록한 『원행을묘정리의궤』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하는 정도에 그쳤다.[26] 그런데 『뎡니의궤』에서는 화성 낙성연에 참여한 연희자들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언급들이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에 좌명ᄒᆞᆫ 후 녀령[기ᄉᆡᆼ]과 악공을 냥계 ᄉᆞ이로 올니니 이 풍뉴는 다 니원[장악원] 악부의 새로 교졍ᄒᆞ야 을묘진찬 시 ᄂᆡ연에 ᄡᅳ온 법악이라[27]

방듕지악은 ᄉᆞ쥭이 질주ᄒᆞ니 경셩의 일흠난 악ᄉᆞ와 가기 각각 ᄌᆡ조를 다ᄒᆞ야 화셩의 교예ᄒᆞᆷ을 빗나게 너기며[28]

악공 녀령은 본부 셰악슈 이패 오셰악슈 일패, 경젼악 이인 가쟈 이인이오 본부기 이십 일명 경기 사명이니 이는 다 경ᄌᆡ에 국션한 ᄂᆡ러라[29]

---

24) 『華城城役儀軌』 附編二 甘結 丙辰年 十月 初七日.
25) 허용호, 앞의 글, 190-192면.
26) 같은 글, 192-193면.
27) 『뎡니의궤』 권48.
28) 『뎡니의궤』 권48.

이 기록들을 정리해 보면, 화성 낙성연의 정재 연희자들은 여령과 악공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주로 정재를 연행한 이들이다. 악공으로는 세악수 이패, 오세악수 일패, 경전악 2인, 가자 2인 등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여령으로는 수원 기생 21명과 서울 기생 4명이 참여했다. 그런데 이 정재 참여 연희자들의 기록은 『화성성역의궤』의 "경·부 악공 21명, 여령 24명"[30]이라는 기록과는 차이가 있다.[31]

5) 새로운 정재 연희 종목: 몽금척과 헌선도 및 쌍검무의 연행

『화성성역의궤』의 〈낙성연도〉를 보면 주 무대인 보계에서 연희자들이 무고를 추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이로 보아 무고가 연희 종목 중에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주 무대 양쪽에 자리한 포구문의 존재로 보아 포구락도 연희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악사석 앞쪽의 지당판의 존재는 연화대 역시 연희 종목 중에 하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이렇게 〈낙성연도〉를 바탕으로 화성 낙성연에서 벌어진 정재 연희 종목을 추정해 왔다.[32]

그런데 『명니의궤』를 보면 무고, 포구락, 연화대 이외에도 여러 정재가 연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인용 대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몽금척, 헌반도(헌선도), 쌍검무 등이 연행된 것이다.

> 풍뉴를 시작ᄒᆞ니 금쳑과 반되[몽금쳑, 헌반도] ᄎᆞ례로 주ᄒᆞ야 셩셰희음이 신인을 화ᄒᆞᆯ지라[33]

> 나ᄌᆡ 남은 풍류 두 빵검뮈라 긴 무지게 들보에 둘니이고 ᄎᆞᆫ서리 공즁에 ᄂᆞᆯ니이니 ᄉᆞ좌의 잔을 머므르고 늠연ᄒᆞᆷ을 ᄭᆡ돗지 못ᄒᆞᆯ어라[34]

---

29) 『명니의궤』 권48.
30) 김만일 외 역, 앞의 책, 608면.
31) 이에 대해 현재 필자는 『명니의궤』의 경우 화성 낙성연 다음날 영화정에서 벌어진 선유에 참여한 이들까지 포함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32) 허용호, 앞의 글, 192면.
33) 『명니의궤』 권48.
34) 『명니의궤』 권48.

결국 화성 낙성연에서 연행된 정재들은 그림을 통해서 무고, 포구락, 연화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새롭게 『뎡니의궤』를 통해서 몽금척, 헌선도, 쌍검무 등도 연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6) 산희와 야희 연행의 구체적인 양상: 사자・호랑이춤과 만석중춤의 연행판

유득공은 『경도잡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연극에는 산희(山戲)와 야희(野戲)의 두 부류가 있는데, 나례도감에 소속된다. 산희는 다락을 매고 포장을 치고 하는데, 사자춤・호랑이춤・만석중춤을 춘다. 야희는 당녀(唐女)와 소매(小梅)로 분장하고 춤을 춘다. 만석은 고려 중 이름이고, 당녀는 고려 때 예성강 가에 살던 중국 창녀다. 소매는 옛날 미녀의 이름이다.[35]

그동안 학계에서는 유득공이 언급한 산희와 야희의 구체적인 양상을 그동안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뎡니의궤』 권39에 산희의 구체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 있다. 〈낙셩연도〉라 이름 붙은 이 그림에서는 사자・호랑이춤과 만석중춤이 그려져 있다. 이러한 양상은 『화성성역의궤』의 〈낙성연도〉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사자・호랑이춤 정도만을 추정할 수 있었을 뿐이다.



〈그림 1〉 〈낙셩연도〉 산희 부분.

위의 〈그림 1〉을 보면, 사자춤・호랑이춤・만석중춤 이외에도 취발이춤으로 추정되는 연행이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당에서는 4명의 마

35) 유득공, 『경도잡지』 권1 성기(聲伎).

부와 함께 사자와 호랑이가 등장하여 연희를 벌이고 있다. 그리고 채붕(彩棚) 또는 산붕이 좌우로 설치된 가운데, 그 채붕에서 취발이와 소무, 소무와 만석중이 연희를 벌이고 있다. 마당에서 연행하는 이들은 앞에서 언급한 정재 연희자들과는 다른 이들이다. 연희자들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 연희에 대하여 『뎡니의궤』 권48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 처엄의 이 무리 과량ᄒᆞ고 구경오믈 위ᄒᆞ여 좌우산봉을 젼면통광쳐에 ᄭᅮ며 쳔만인이 못 보리 업시 진일토록 즐기게 ᄒᆞ니 당상션악은 비록 예상과 우의라도 저희 눈에ᄂᆞᆫ 밍쟈단쳥과 다ᄅᆞ미 업고 오직 사ᄌᆡ 취승의 잡도이 희롱ᄒᆞ믈 평ᄉᆡᆼ장관으로 환젼희지 ᄒᆞ니 만인총듕의 곳곳이 훅ᄲᅥ러진 삿갓과 두어복 치마로 우자피이고 ᄲᅱ노러 미친 흥을 이긔지 못ᄒᆞ니 ᄉᆞ면의 우음소ᄅᆡ 잇다감 우레굿더라[36]

인용한 대목을 보면 '곳곳에 삿갓과 치마가 어지럽게 흩어지도록 신명 나게 놀고, 우레 같은 웃음소리가 퍼지는' 난장판 같은 연희가 벌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연행판의 모습은 선행 연구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것이다. 최근 〈낙셩연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연희가 벌어지는 연행판의 흥청거리는 모습을 살피지는 않았다.[37] 인용한 권48에서의 흥청거리는 연행판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7) 화성 낙성연의 전개 양상: 밤새도록 벌어진 화성 낙성연의 양상

『뎡니의궤』 권48을 보면 화성 낙성연은 아침 일찍 시작하여 밤새도록 벌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대목은 밤새워 진행된 화성 낙성연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흥미롭다.

> 날이 져믈매 돗찰 고치고 금가와 소작으로 ᄯᅩ 밤을 졈복ᄒᆞᆯᄉᆡ 긔망낭소에 월ᄉᆡᆨ이 여쥬ᄒᆞ고 은촉사롱의 ᄎᆡ각이 령농ᄒᆞ니 어시의 향은 금노에 ᄉᆞ르고 차는 욱완에 편ᄒᆞ며 방듕지악은 ᄉᆞ쥭이 질주ᄒᆞ니 경셩의 일홈난 악ᄉᆞ와 가기 각각 ᄌᆡ조를

36) 『뎡니의궤』 권48.
37) 전경욱, 앞의 글.

다 ᄒᆞ야 화셩의 교예ᄒᆞ믈 빗나게 너기며 나ᄌᆡ 남은 풍뉘 두 빵검뮈라 긴 무지게 들보에 둘니이고 ᄎᆞᆫ서리 공즁에 ᄂᆞᆯ니이니 ᄉᆞ좌의 잔을 머므르고 늠연ᄒᆞᆷ을 ᄭᆡ돗지 못ᄒᆞᆯ어라 잔ᄎᆡ 파ᄒᆞ매 동방이 거의 ᄇᆞᆰ으니 각각 부취ᄒᆞ여 도라가 명일 영화졍의 다시 션유ᄒᆞ니 지리인화와 산쳔승개를 질탕한 풍뉘 족히 비식ᄒᆞ미 될지라[38]

그동안 화성 낙성연이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벌어졌다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위의 인용 대목을 보면 작은 술자리 형식으로 판을 재정비하여 작은 규모의 연주와 쌍검무 등이 아침까지 벌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낙성연의 전개 양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낮에 대규모의 잔치판에서 포구락, 연화대, 무고, 몽금척, 헌선도 등이 정재가 본 무대인 보계 위에서 벌어졌고, 마당판에서는 사자와 호랑이, 만석중과 취승(취발이), 그리고 소무들이 등장하는 연희가 흐드러지게 연행되었다. 이어서 날이 저물자 판을 재정비하여 작은 규모의 연주와 쌍검무 등이 아침까지 연행되었다. 아침에 시작되어 밤을 지새운 잔치가 화성 낙성연이었다.

3. 화성 낙성연의 입체적 조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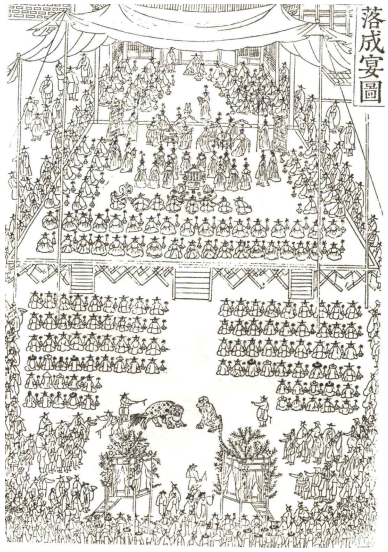
앞에서 논의한 '연구사 검토'와 '새롭게 밝혀진 화성 낙성연의 양상'은 화성 낙성연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론에서 많은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새롭게 밝혀진 화성 낙성연의 양상은 '총리대신 채제공의 참석', '삼십간 보계와 차일 설치 및 마당', '위계에 따른 관객의 배치', '여령과 악공의 참여', '몽금척과 헌선도 및 쌍검무의 연행', '사자춤・호랑이춤・ 만석중춤의 연행판', '밤새도록 벌어진 화성 낙성연의 양상'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3장에서는 이렇게 새롭게 밝혀진 것들을 아우르면서 화성 낙성연을 입체적으로 조망해 본다.

1) 화성 낙성연의 연행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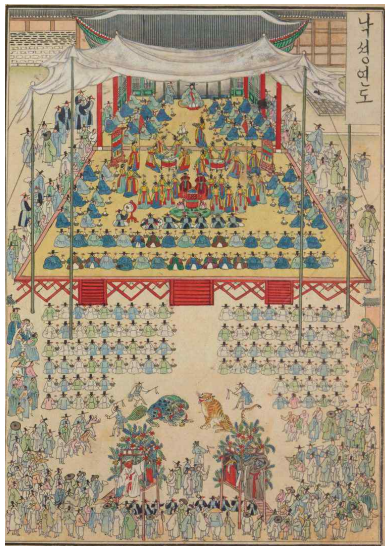
낙성연이 벌어진 공간은 화성행궁의 낙남헌이다. 낙남헌은 각종 행사를 진

38) 『명니의궤』 권48.

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알맞게 배치한 행사용 건물이다. 그 건물 용도에 걸맞게 낙남헌은 1796년 10월 16일에 전통연희의 연행 공간으로 바뀐다. 낙남헌이 전통연희의 연행 공간으로 전환된 양상은 『화성성역의궤』의 〈낙성연도〉나 『뎡니의궤』의 〈낙셩연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낙성연도〉.



〈그림 3〉 〈낙셩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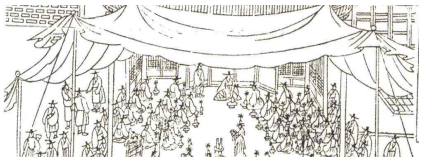
〈낙성연도〉와 〈낙셩연도〉에서는 상단의 낙남헌 대청으로부터 임시로 가설된 보계 그리고 마당으로 이어지는 구도 속에 보계 위와 마당에서의 전통연희 광경이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연행 공간의 양상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낙남헌 앒히 삼십 간 보계를 베프고 쳠하에 챠일이 놉기 구름ᄀᆞᆺᄐᆞ며 쓸에 ᄇᆡ셜ᄒᆞ믄 강무당 압ᄭᆞ지 ᄇᆡᆨ 여보를 통ᄒᆞ여시니"라고 하여 『뎡니의궤』에서도 그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39] 낙남헌 대청으로부터 임시로 가설된 보계와 마당으로 이어지는 연행 공간의 구조가 언급되고 있다.

낙남헌 대청 중앙 맨 안쪽에 총리대신 좌의정 채제공이 자리했고, 그 양옆

39) 『뎡니의궤』 권48.

으로 수원부유수 조심태, 도청통제사 이유경, 수원부판관 홍원섭, 수원부중군 김후 등이 자리 잡았다.[40] 보계[41]는 가운데 무대 공간으로, 대청 쪽을 제외한 3면이 객석으로 활용되고 있다. 악공들의 뒤로도 객석이 배치된 것은 보계에 오를 참석자들의 수에 비하여 보계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이다. 보계의 규모는 '삼십 간'이다.[42] 보계 위로는 처마에 높이 차일이 쳐져 있다. 보계의 아래 마당 공간에도 객석을 배치하였다. 마당 공간에서는 일단의 사람들이 선 채로 두 개의 가설물과 사자춤과 호랑이춤 연희를 보고 있다.

이렇게 『화성성역의궤』와 『명니의궤』의 기록과 그림을 통해 드러나는 낙성연의 연행 공간은 세 층위로 구별할 수 있다. 그림 상단의 낙남헌 대청이 첫 번째 층위에 해당하며, 그림 중상부의 보계가 설치된 마당이 두 번째 층위가 된다. 그리고 보계 밑 마당에 자리한 두 개의 가설물과 사자춤과 호랑이춤이 연행되는 공간이 세 번째 층위가 된다.



〈그림 4〉 〈낙성연도〉의 낙남헌 대청 공간.



〈그림 5〉 〈낙셩연도〉의 낙남헌 대청 공간.

첫 번째 공간인 낙남헌 대청은 총리대신 채제공을 중심으로 수원부유수 조심태, 도청통제사 이유경, 수원부판관 홍원섭, 수원부중군 김후 등이 자리 잡았다. 총리대신 왼쪽으로 감동당낭들이 자리 잡았고, 오른쪽에는 중빈들이 자리했다.[43] 이들은 보계 위에서 연행되는 전통연희를 정면에서 관람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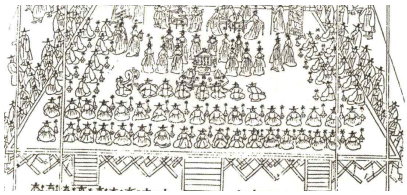
40) 『명니의궤』 권48.

41) 낙성연에서 보계가 가설되었음은 〈낙성연도〉나 〈낙셩연도〉뿐만 아니라, 『華城城役儀軌』 附編二 甘結 丙辰年 十月 初七日의 "보계를 설치하는 따위의 일은 미리 거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계의 판자 및 차일, 둘러칠 병풍, 장막, 유기, 목기 등은 아울러 본부에 있는 것을 쓰고 음식 조리를 위한 임시 가옥과 건물 및 솥, 물, 담을통 등은 역소에서 만들어서 옮겨다 쓰도록 하기 바랍니다."라는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또한 『명니의궤』 권48에도 "낙남헌 앞히 삼십 간 보계를 베프고"라고 언급되고 있다.

42) 『명니의궤』 권48.

43) 『명니의궤』 권48.

있는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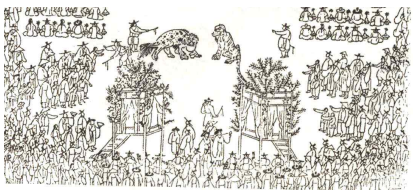


〈그림 6〉 〈낙성연도〉의 보계 공간.



〈그림 7〉 〈낙셩연도〉의 보계 공간.

두 번째 공간은 낙남헌 대청과 같은 높이로 이어 붙인 보계 부분이다. 이 부분의 그림은 보계의 구조를 알려주는 흥미로운 자료이다. 이 그림을 보면 보계 밑에 각목 따위를 엇갈려 세우고 쇠사슬 따위로 묶어 연결하고 그 위에 보계판을 얹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0간 규모의 보계 위 중상단은 전통연희가 벌어지는 무대 공간이다. 두 그림에서는 동일하게 무고 연행이 벌어지고 있다. 보계 상단 좌우에는 포구락에 쓰이는 포구문(抛毬門)이 자리하고 있다. 중앙에는 악기 연주자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앞으로 연화대에 쓰이는 지당판(池塘板)이 있다. 전통연희가 벌어지는 무대 공간을 둘러싸고 대청 쪽을 제외한 삼면에는 초청된 인사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은 감동제원들로 동서로 나누어 자리를 잡았다.[44] 악사석 뒤와 마당에도 자리가 마련되었는데, 이는 보계에 오를 참석자들의 수에 비하여 보계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장교원역과 공장역부들이 자리를 잡았다. 장교원역들은 보계 계단 밑에 동서로 자리를 잡았고, 공장역부들은 보계 무대를 향하여 벌려 앉았다.[45]



〈그림 8〉 〈낙성연도〉의 마당 공간.



〈그림 9〉 〈낙셩연도〉의 마당 공간.

44) 『뎡니의궤』 권48.
45) 『뎡니의궤』 권48.

세 번째 공간인 낙남헌 앞마당에는 독특한 구조물이 보인다. 마당에 서서 보는 사람들 앞에서 사자춤과 호랑이춤이 연행되고 있으며, 그 뒤로 구조물 두 개가 자리하고 있다. 사면이 터진 구조에 면마다 휘장이 처져 있는 이 구조물을 중심으로 본다면, 〈그림 8〉과 〈그림 9〉의 차이가 나타난다. 〈그림 8〉에서 나타나지 않은 등장인물이 〈그림 9〉에 분명하게 표현된 것이다. 취발이와 소무, 노장과 소무로 추정되는 인물이 구조물 위에서 연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구조물에 대하여 『화성성역의궤』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약간 떨어지고 널찍한 곳에다 채붕을 설치하고(設綵棚) 다양한 놀이를 마련하여 상하가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46)

인용 대목에서의 '채붕(綵棚)'은 『사원(辭源)』에 의하면, "나무를 엮어 비단 장막으로 덮은 것(謂木張綵以爲覆蔽也)"을 말한다. 〈낙성연도〉의 마당에 조성된 것은 다름 아닌 '누각형 산대'이다.47) '붕(棚)의 구조로 이루어진 장식된 가설 누각의 형태', '같은 크기와 형태로 두 개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 '솔가지 장식', '채붕 주변에 두른 비단 천', '솔가지와 꽃 모양의 장식물로 얽혀진 기둥' 등의 특징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 구조물을 충분히 산대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그 규모에 있어 차이점이 있지만 많은 부분 과거 조설되었던 산대의 특징과 부합되며 특히 누각형 산대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2) 화성 낙성연의 연행 무대와 관객

낙남헌과 그 앞마당은 화성 낙성연을 거행하면서 연행 공간으로 전환된다. 연행의 주 무대는 보계 중앙 부분이며, 그 아래로 악기 연주자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 주 무대를 중심으로 관객석이 위쪽과 좌우로 자리하고 있다. 관객들이 삼면으로 둘러싼 구조가 되는 것이다. 낙성연의 무대와 관객석에서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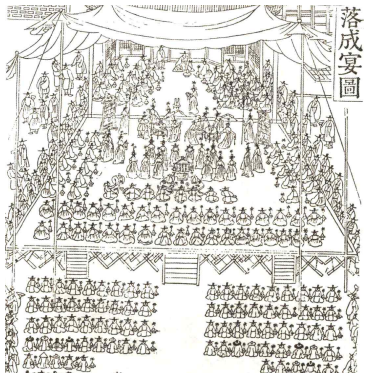
46) 『華城城役儀軌』 附編二 甘結 丙辰年 十月 初七日.
47) 마당에 가설된 구조물을 누각형 산대로 추론한 것은, 홍미라, 「山臺 造設의 意味와 構造에 관한 硏究」,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98, 150-151면 참조.

목할 만한 것은 크게 2개의 연행 무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보계 위에서 벌어지는 연행과는 별개로 보계 아래 마당에서 또 다른 연행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행 무대와 그것을 보는 관객석의 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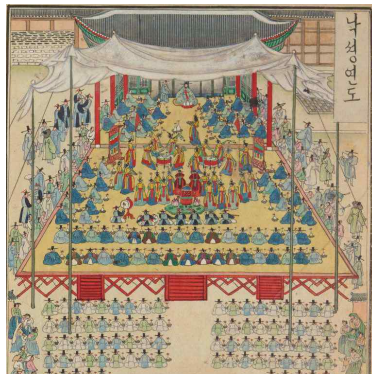
낙남헌 앞마당에 임시로 가설된 보계 위에서 벌어지는 연행을 정면에서 볼 수 있는 곳은 낙남헌 대청 중앙에 마련된 관객석뿐이다. 이 관객석에 자리한 이들의 정체는 『뎡니의궤』의 다음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총니대신은 장중의 쥬벽ᄒᆞ고 감동당낭은 셔벽의 동향ᄒᆞ되 겹줄노 위를 다ᄅᆞ게 ᄒᆞ며 듕빈의 위는 동벽의 셔향ᄒᆞ고[48]

대청에는 총리대신 채제공, 수원부유수 조심태, 도청통제사 이유경, 수원부판관 홍원섭, 수원부중군 김후, 전라우수사 김처한 등 15인이 자리를 잡았다. 총리대신이 보계 위에서 벌어지는 연행을 정면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았으며, 그 왼쪽으로 감동당낭이, 오른쪽으로는 중빈들이 자리했다. 보계 위 무대 좌우로 마련된 관객석에는 동서로 감동제원들이 자리를 잡았다. 이들은 무대를 가운데 두고 동서로 나누어 앉았다. 관객석은 악사 뒤쪽과 보계 밑 마당에도 마련되었다. 임시로 가설한 보계가 좁았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다. 여기에는 장교원역과 공장역부들이 자리 잡았다.



〈그림 10〉 〈낙성연도〉의 보계 연행 무대와 관객.



〈그림 11〉 〈낙성연도〉의 보계 연행 무대와 관객.

48) 『華城城役儀軌』 附編二 甘結 丙辰年 十月 初七日.

화성 낙성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마당에 마련된 연행 무대이다. 이에 대해『뎡니의궤』에서는 “일흠 업시 참예ᄒᆞ는 손은 별노 후헌에 자리를 베프며” 라고 언급하고 있다.[49] 이 무대에서는 보계 위에서 벌어지는 연희와는 다른 연희가 벌어지고 있다. 보계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희가 궁중이나 지방 관아의 행사에서 벌어지는 정재라면, 낙남헌 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자와 호랑이춤, 그리고 가면극을 연상시키는 민간 연희이다. 이 연행을 구경하는 관객들은 초청받은 특별한 관객이 아니다. 별달리 마련된 좌석 없이 서서 사자와 호랑이춤과 산대에서의 연행을 구경하고 있다. 이러한 연행 무대는 다음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준비된 것이다.

> 그리고 원근에서 구경 온 백성들은 반드시 양식을 가지고 와서 모이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만 군데군데 모여서 바라보기만 한다면 장님 단청 구경하는 격이 되어 정말로 무엇을 보고 왔는지 모를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위로하고 기쁘게 할 수가 없을 것이므로 도청에서 경포교에게 이 뜻을 알려 약간 떨어지고 널찍한 곳에다 비단 장막을 설치하고 다양한 놀이를 마련하여 상하가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50]

이렇게 준비가 된 마당에서의 민간연희는 정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아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신명으로 흥청거리는 축제판이 벌어졌다. ‘곳곳에 삿갓과 치마가 어지럽게 흩어지도록 신명 나게 놀고, 우레 같은 웃음소리가 퍼지는’ 난장판 같은 연행이 벌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 처엄의 이 무리 과량ᄒᆞ고 구경오믈 위ᄒᆞ여 좌우산봉을 젼면통광쳐에 ᄭᅮ며 쳔만인이 못 보리 업시 진일토록 즐기게 ᄒᆞ니 당상션악은 비록 예상과 우의라도 저희 눈에ᄂᆞᆫ 밍쟈단쳥과 다ᄅᆞ미 업고 오직 사ᄌᆡ 취승의 잡도이 희롱ᄒᆞ믈 평ᄉᆡᆼ장관으로 환젼희지 ᄒᆞ니 만인총듕의 곳곳이 훅ᄲᅥ러진 삿갓과 두어복 치마로 우자피이고 ᄭᅲ노러 미친 흥을 이긔지 못ᄒᆞ니 ᄉᆞ면의 우음소ᄅᆡ 잇다감 우레굿더라[51]

---

49)『뎡니의궤』 권48.
50)『華城城役儀軌』 附編二 甘結 丙辰年 十月 初七日.
51)『뎡니의궤』 권48.



〈그림 12〉 화성 낙성연의 마당 연행 무대와 관객들.

3) 화성 낙성연의 연희자와 연행 종목

화성 낙성연의 경우, 봉수당 진찬연과 같이 전통연희 관련 기록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동안 『화성성역의궤』에 있는 〈낙성연도〉라는 그림이 당시 연희 양상을 추론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였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뎡니의궤』에 당시 연행에 참여한 연희자들의 정체에 대한 기록과 『화성성역의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연행 종목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화성 낙성연에 참여한 연희자와 연행 종목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화성 낙성연에 참여한 연희자들은 크게 보계 무대 위의 정재 연희자들과 마당판에서의 민간 연희 연희자들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정재 연희자들은 여령과 악공으로 구성되었다. 악공으로는 세악수 이패・오세악수 일패・경전악 2인・가자 2인 등이 참여했고, 여령으로는 수원 기생 21명과 경기 기생 4명이 참여했다.[52] 이 정재 참여 연희자들에 대하여 『화성성역의궤』에서는 "경・부 악공 21명, 여령 24명"[53]이라 기록되어 있다.[54] 이들이 연행한 정재

52) 『뎡니의궤』 권48. "악공 녀령은 본부 셰악슈 이패 오셰악슈 일패, 경젼악 이인 가쟈 이인이오 본부기 이십 일명 경기 사명이니 이는 다 졍직에 국션한 뉘러라"

53) 김만일 외 역, 앞의 책, 608면.

54) 이에 대해 현재 필자는 『뎡니의궤』의 경우 화성 낙성연 다음날 영화정에서 벌어진 선유에 참여한 이들까지 포함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는 무고, 포구락, 연화대, 몽금쳑, 헌반도(헌선도), 쌍검무 등이다. 소리 기생들의 소리와 악사들의 연주 역시 벌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무고, 포구락, 연화대의 경우 〈낙성연도〉나 〈낙셩연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령들이 연행을 하는 것이 무고이다. 무대 양쪽에 자리한 포구문의 존재로 보아 포구락도 연행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악사들 앞에 놓인 지당판으로 보아, 연화대 역시 연행 종목 중의 하나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림 13〉 〈낙셩연도〉의 정재 연행 부분.

또한 "풍뉴를 시작ᄒᆞ니 금쳑과 반되(몽금쳑, 헌반도) ᄎᆞ례로 주ᄒᆞ야"[55]라는 『뎡니의궤』의 기록에서 몽금쳑, 헌반도(헌선도)가 연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악사의 연주와 소리, 그리고 쌍검무 연행도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 방듕지악은 ᄉᆞ죡이 질주ᄒᆞ니 경셩의 일흠난 악ᄉᆞ와 가기 각각 ᄌᆡ조를 다 ᄒᆞ야 화셩의 교예ᄒᆞ믈 빗나게 너기며 나ᄌᆡ 남은 풍뉘 두 빵검뮈라 긴 무지게 들보에 둘니이고 ᄎᆞᆫ서리 공즁에 ᄂᆞᆯ니이니 ᄉᆞ좌의 잔을 머므르고 늠연ᄒᆞᆷ을 ᄭᆡ돗지 못ᄒᆞᆯ어라[56]

마당판에서는 민간 연희가 벌어졌다. 그 정체가 모호했던 〈낙성연도〉와는

55) 『뎡니의궤』 권48.
56) 『뎡니의궤』 권48.

달리 〈낙셩연도〉에서는 연행한 민간 연희의 정체 확인에 보다 가까워졌다. 〈낙셩연도〉에 나타난 연희들을 현상적으로 보면 사자와 호랑이춤, 산대 위 노장과 소무의 춤, 산대 위 취발이와 소무의 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마당에서는 사자와 호랑이춤이 벌어지고 있으며, 산대 위에서는 산대놀이나 해서탈춤에서의 노장과장을 연상시키는 연행이 벌어지고 있다.



〈그림 14〉 화성 낙성연에서의 사자와 호랑이춤.

마당에서의 사자와 호랑이춤과 산대 위에서의 노장춤과 취발이춤은 서로 독립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렇게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래서 각각 사자와 호랑이춤, 그리고 산대 위에서의 가면극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림 15〉 산대 위에서의 취발이와 소무춤.



〈그림 16〉 산대 위에서의 노장과 소무춤.

그런데 앞에서 인용했던 『경도잡지』의 언급을 보면, 마당판에서의 연행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된 하나의 연희로 볼 수 있다. '사자춤・호랑이춤・만석중춤'이 산희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유득공이 언급한 산희와 야희의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뎡니의궤』 권39에 있는 〈낙셩연도〉에서 산희와 야희의 구체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낙셩연도〉에서는 유득공이 언급한 산희와 야희의 제 양상과 일치하고 있다. 사자춤, 호랑이춤, 만석중춤은 물론이고 당녀와 소매까지 모두 나타나고 있다. 마당에서 두 동물의 춤은 사자춤과 호랑이춤이다. 또한 산대 위에서의 노장과 소무, 취발이와 소무 등의 춤은 만석중춤이다.[57] 더불어 산대 위의 소무들은 유득공이 야희의 등장인물로 말하고 있는 당녀와 소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낙성연 마당판에서의 연행은 산희와 야희가 어우러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산대 위에서 벌어져야 할 사자춤과 호랑이춤이 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다. 산희가 야희가 된 것이다. 마당에서 춤을 춰야 할 소매와 당녀는 산대 위에 올라가 있다. 야희가 산희가 된 것이다. 이렇게 산희와 야희가 화성 낙성연에서는 하나의 연희로 어우러지고 있다. 사자춤・호랑이춤・만석중춤으로 구성된 산희와 당녀와 소매의 춤으로 구성된 야희가 그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연희로 나타나고 있다.

마당판에서의 연희를 담당한 이들은 보계 위 무대에서의 정재 연희자들과는 다른 계열의 연희자들로 보인다. 『화성성역의궤』는 물론이고 『뎡니의궤』에서도 그들의 정체는 밝혀져 있지 않다. 추정컨대, 마당판에서의 연희자들은 수원 재인청 소속의 연희자들인 듯하다. 당시 민간연희를 담당했던 민간 광대들로 보이는 것이다. 이들의 연희는 정재와는 다른 분위기에서 연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음의 언급에서 잘 나타난다.

좌우산봉을 젼면통광쳐에 ᄉᆞ며 쳔만인이 못 보리 업시 진일토록 즐기게 ᄒᆞ니

57) 전경욱은 "만석중춤이 노승(만석중)과 기생(황진이), 취발이와 소무가 등장하는 가면무로서," "봉산탈춤이나 양주별산대놀이의 노장과장과 유사한 내용"임을 밝히고 있다. 전경욱, 앞의 글, 322-329면.

> 당상션악은 비록 예상과 우의라도 저희 눈에는 뭉쟈단쳥과 다ᄅᆞ미 업고 오직 사ᄌᆡ 취승의 잡도이 희롱ᄒᆞ믈 평ᄉᆡᆼ장관으로 환젼희지 ᄒᆞ니 만인총듕의 곳곳이 훅 써러진 삿갓과 두어복 치마로 우자피이고 쒸노러 미친 흥을 이긔지 못ᄒᆞ니 ᄉᆞ면의 우음소ᄅᆡ 잇다감 우레굿더라[58]

삿갓과 치마가 어지럽게 흩어지도록 신명 나게 놀고, 우레와 같은 웃음소리가 퍼지는 난장의 축제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4. 화성 낙성연의 전통연희사적 가치

1796년(정조 20) 10월 16일 화성 행궁 낙남헌 일대는 축제판이 되었다. 그 축제는 다음 날 해가 뜰 무렵까지 이어졌다. 10월 16일 아침 일찍부터 시작하여 밤을 새우고 다음 날 해가 뜰 무렵까지 여러 연행이 벌어졌다. 연행은 두 공간에서 벌어졌다. 보계 무대에서는 포구락, 연화대, 무고, 몽금척, 헌선도 등이 정재가 여령과 악공들에 의해 벌어졌다. 마당판에서는 호랑이춤과 사자춤, 그리고 만석중춤이 어우러지는 산희가 연행되었다. 야희의 등장인물인 소매와 당녀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기생들 역시 등장하고 있다. 산희와 야희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정재 연행이 격조 있고 흥을 중심으로 한 연행이었다면, 마당판에서의 연행은 어지럽게 난장을 벌이는 신명 중심의 연행이었다. 낙남헌에서의 잔치는 날이 저물어도 끝이 나지 않았다. 날이 저물자 축제판을 재정비하여 작은 규모의 연주와 쌍검무 등이 어우러지는 밤 연행이 이어졌다. 축제는 다음 날 동이 터 오를 무렵까지 지속하였다. 이렇게 진행된 화성 낙성연의 양상과 특징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59]

---

58) 『명ᄂᆡ의궤』 권48.

59) 이러한 '화성 낙성연의 양상과 특징'을 궁중연향의 일반적 성격과 비교하여, 이를 토대로 화성 낙성연의 전통연희사적 의의를 거론해야 한다.'라는 심사 의견이 피력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다. 이후 일반 궁중연향과 화성 낙성연의 비교를 시도하면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할 계획이다.

〈표〉 화성 낙성연의 양상과 특징

	1796년 화성 낙성연
연행 공간	낙남헌 대청・보계・마당 (건물 안팎, 보계 위와 아래, 보계 위와 마당 등을 통해 지위에 따른 자리를 구획하는 위계적 공간 구조와 부분적으로 마당을 일반인들에 개방하는 준 폐쇄적 공간 구조) *보계의 구체적인 구조가 나타남 *마당에 채붕 가설
연행 무대	보계와 마당의 이중 무대 구조 (궁중 정재가 연행되는 보계 무대와 민간 연희가 연행되는 마당판의 이중 무대)
관객석	대청(실내): 총리대신, 감동당낭과 중빈(고위 초청 인사) 보계(실외, 보계 위): 감동제원(초청 인사) 보계 밑(실외, 보계 밑): 장교원역, 공장역원(하위 초청 인사) 마당(실외): 민간 구경꾼들 *대청 및 보계와 마당이라는 구분을 통해 위계적 관객석의 설치 *일반인에게도 부분적으로 연희를 개방하는 준 폐쇄적 성격 *남녀의 구별을 엄밀하게 하지 않음
연희자	정재 연희자: 경부 악공 21명과 여령 20여 명(수원과 경기 기생들) 산희와 야희 연희자: 수원 재인청 소속의 광대들 *지방 관아 행사에 참여한 광대들의 연행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줌
연희 종목	정재: 무고, 포구락, 연화대, 몽금척, 헌반도(헌선도), 쌍검무, 소리와 악기 연주 민간 연희: 산희와 야희(사자춤, 호랑이춤, 만석중춤, 당녀와 소매의 춤) *산희와 야희와 같은 민간 연희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드러냄 *산희와 야희의 경계가 해체된 연희의 모습 *밤을 지새우는 축제적 연행판의 면모

본 연구를 통해 파악된 화성행궁에서의 낙성연은 그동안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몇 가지 정보들을 전해주고 있다. 연행의 공간 구조, 무대, 참여 연희자들의 성격, 연희 종목, 그리고 낙성연의 성격 등에 걸쳐 여러 정보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 제시되는 정보들은 '삼십 간 보계의 구조와 차일 설치', '마당에서의 산대 조성', '위계에 따른 관객석의 배치', '관객들의 구체적인 정체', '채붕과 산희의 구체적인 양상', '산희와 야희의 경계 해체', '연희자들의 정체', '정재 연행 종목의 양상', '밤 연행의 모습', '밤을 지새워 진행되는 축제적 양상'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정보들의 구체성은 우리 전통연희사 기술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특히 산희와 야희의 경계 해체의 모습과 그 흥

청거리는 연희판의 모습을 확인한 것은 나름이 성과라고 생각한다. 유득공이 구분했던 산희와 야희가 화성 낙성연에서는 하나의 연희가 되는 것이다.

전통연희사 기술에서 요긴한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낙성연이 벌어진 화성행궁 역시 주목할 만한 장소라 할 만하다.[60] 화성행궁은 평소에는 수원 유수부의 관아로 쓰이다가 왕이 행차하게 되면, 왕이 기거하는 공간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화성행궁의 이중적 성격에 걸맞게, 전통연희 역시 왕실 가족과 고관만 참여하는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궁중 연희가 벌어졌는가 하면, 다른 한편 일반인에게도 부분적으로 연희를 개방하는 준 폐쇄적인 지방 관아 연희가 벌어졌다. 중앙의 궁중 연희와 지방 관아의 연희, 궁중 연희와 민간 연희, 궁중 연희자와 민간 연희자, 상층 관객과 하층 관객 등이 모두 같은 화성행궁이라는 공간에서 존재하고 교류하며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보았을 때, 화성행궁은 우리 전통연희사에서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궁중과 민간, 중앙과 지방, 상층과 하층의 전통연희가 서로 독립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로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받았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공간이 화성행궁인 것이다.

60) 화성행궁이라는 공간이 갖는 전통연희사적 의의는 필자의 이전 연구(「화성 행궁과 전통연희」)에서 이미 언급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필자의 이전 연구의 오류와 미비점들을 보완했지만, 화성행궁이 갖는 전통연희사적 의의는 여전하다. 따라서 필자의 이전 연구의 해당 대목을 그대로 반복한다.

▮ 참고문헌

『명니의궤』 권39(COR.40),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 소장본.
『명니의궤』 권40・46・47・48(COR.1-21), 프랑스 파리 동양어학원 도서관 소장본.
김만일 외 역, 『수정국역 화성성역의궤』, 경기문화재단, 2001.
수원화성박물관, 『정조대왕과 수원화성』(정조대왕 즉위 24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도록), 수원화성박물관, 2006.
유득공, 『경도잡지』 권1.

김은영, 「산대와 채붕」, 『생활문물연구』 제10호, 국립민속박물관, 2003, 1-17면.
김일출, 『조선민속탈놀이연구』, 과학원출판사, 1958.
모리스 꾸랑, 이희재 역, 『韓國書誌』, 일조각, 1997.
사진실, 『공연문화의 전통』, 태학사, 2002.
안대희, 「18・9세기 탈춤꾼・山臺造成匠人 卓文漢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33권 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235-260면.
옥영정, 「한글본 『명니의궤』의 서지적 분석」, 『書誌學硏究』 제39집, 한국서지학회, 2008, 139-168면.
_____, 「『華城城役儀軌』의 한글자료에 관한 연구」, 『書誌學硏究』 제46집, 한국서지학회, 2009, 5-45면.
_____, 「『華城城役儀軌』와 『명니의궤』의 서지적 분석과 비교」, 『震檀學報』 제127호, 진단학회, 2016, 159-192면.
이달호, 『18세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화성건설』, 혜안, 2008.
전경욱, 『한국의 전통연희』, 학고재, 2004.
_____, 「새 자료 채색화 「낙성연도」를 통해 본 산희의 실체」, 『민족문화연구』 제73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6, 305-333면.
허용호, 「화성 행궁과 전통연희」, 『민족문화연구』 제39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3, 165-198면.

【Abstract】

The Total Picture of Hwaseong Nakseongyeon and The Value of Traditional Performance History

Heo, Yong-H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full extent of the Hwaseong Nakseongyeon and to examine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Hwaseong Nakseongyeon as traditional performance. The main data to be reviewed for this purpose is *DyeongNiUigwe*, which has recently been excavated and is drawing attention. *DyeongNiUigwe* can be said to be the *Hwaseong Seongyeok Uigwe* in Korean, and its contents show that it cannot be found in the *Hwaseong Seongyeok Uigwe*, or that other aspects appear. In the *DyeongNiUigwe*, traditional performances that have been vague or unclear have been shown through Hwaseong Nakseongyeon. There are many performances that are noteworthy in the history of traditional performance. I am trying to re-examine the value of Hwaseong Nakseongyeon by carefully examining new material.

On October 16, 1796 (the 20th year of King Jeongjo), the area around Hwaseong became a festival. The festival continued until the sun rose the next day. The performance took place in two spaces. Jungjae such as Pokurak, Yeonhwadae, Moogo, Monggeumchuk, Heonseondo are performed by Yeoreong and court musicians in Bogye stage. In the yard, a Sanhee of tiger dance, lion dance, and Mangseokjung dance was performed. As the day fell, the festival was rearranged and the night's performance were followed by small-scale a musical performance and double sword dance.

The study found that Nakseongyeon in Hwaseong Haenggung contains some important values that we have not noticed before. It's giving us a lot of important information. It includes the structure of performed space, stage, the character of the performers, performed event, the Nakseongyeon's character and so on. The information presented can be organized into 'Bogye's structure and an awning installation', 'the formation of a Sandai in the yard', 'the placement of audience seats

* Visiting professor, School of Korean Traditional Art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ccording to the hierarchy', 'specific identity of the audience', 'specific aspect of Chaebung and Sanhee', 'the identity of performers', 'the aspect of Jungjae performing events', 'the appearance of a night's performance', 'the festive phase of the night' etc. These information is worth establishing itself as an important item in our traditional performance history description.

Keywords: Hwaseong Nakseongyeon, *DyeongNiUigwe*, *Hwaseong Seongyeok Uigwe*, Traditional performance history, Sanhee, Yahee, Hwaseong Haenggung.

접수일: 2019.09.30. ‖ 심사일: 2019.10.08. ‖ 게재확정일: 2019.11.15.